

##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

월간 <K-산업보건>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. <K-산업보건>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.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.

### 참여 방법

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



### 참여 기간

2024년 3월 20일까지

### 당첨 선물

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(총 10명)



### 2월호 독자평

'그 사람의 직업병'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. 또, 테크노 낙관주의를 다룬 이슈 페이지를 보며 사람의 노동환경에 로봇 투입이 만연한 세상이지만, 사람의 뒀까지 대신할 수 없음을 새삼 느꼈습니다.

**인천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권보선**

특수건강진단체계 C<sub>1</sub>과 C<sub>2</sub>에 관한 칼럼이 흥미로웠습니다. 노동자 유소건자 상담을 실시하면서 일반질병 유소건자와 직업적 질환 유소건자를 비교해 보고, 생활습관요인과 직업적 유해요인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.

**보건관리자 신혜리**

일터에서 중대재해가 없거나 획기적으로 줄도록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산재사고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지상토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**애독자 김리아**

소리 없이 살인을 저지른 존재 흉에 관한 내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특히 조리훈 이야기가 와닿았네요. 그동안 흉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폐건강을 잃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. 사업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**Ehs팀 주무관**